

봄, 날씨, 공군!

3월은 흔히 봄이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지만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은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면 아름다운 꽃과 푸른 나무들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겠지만, 달갑지 않은 손님도 찾아오죠? 바로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날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날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게다가 매년 3월 23일은 세계기상기구 발족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적 기념일인 ‘세계 기상の日’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3월은 ‘날씨’라는 단어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번 공군지에서는 ‘날씨와 공군’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Contents



8



28



3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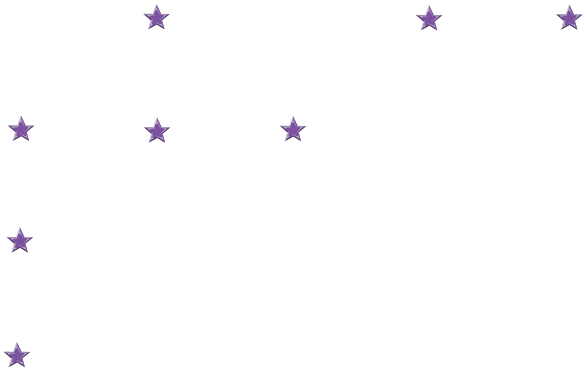
36



48



50



R.O.K AIR FORCE
VOLUME 465

2017 March

공군 IN •

- | | |
|----------------------|--------------------------------------|
| 06 Pioneer's Opinion |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전략(CJ E&M 조은정 부장) |
| 08 기획특집① | 날씨와 공군,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 |
| 16 기획특집② | 공군 최초 블랙이글스 형제 조종사 탄생 |
| 20 포토 프레임@AF | 2월의 참모총장 동정 |
| 22 Air Force Monthly | 2월의 공군 소식 |
| 24 기획특집③ | 사진 왕초보 탈출하기, 봄나들이 사진 잘 찍는 법 |
| 28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 | 일일 전투조종사 체험, 그 잊지 못할 짜릿했던 순간 |
| 30 조인, 조인! | 서초소방서 예방과 '최재구' 소방교 |
| 34 하늘을 향한 시선 | 공군을 거쳐 간 모든 이는 우리의 '전우'이고 '친구'이다 |
| 36 공군이 되는 9가지 방법 |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
| 40 신고합니다! | 5비 군견소대 일병 박민재 & 병장 두호영 |
| 42 Fitness |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GLOBAL & INSIGHT •

- | | |
|---------------------|----------------------------|
| 44 Air-power Report | 중국의 차기 전략수송기 'Xian Y-20' |
| 46 공군 재무관리본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우리가 대비할 것들! |

표지(앞)
날씨와 공군,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
사진 중사 조수민(홍보과)

커버스토리
글 대위 이상우(홍보과)

CULTURE 36.5 •

- | | |
|----------------------|-------------------|
| 48 Hollywood English |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 |
| 50 트렌드가 보인다 | 남성들의 '멋'을 위한 패션제안 |

발행일자 2017년 3월 1일(통권 제465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경두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한상균
편집장수 중령 윤영삼, 소령 박윤서
기획·편집 대위 이상우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7020075)
(960-7443~7445, 042-550-7443~7445)

OPINION •

- | | |
|------------|--------------------|
| 52 생각하는 그림 | 올림픽 3연패보다 빛난 그의 질주 |
| 54 담벼락 | 시작 |
| 56 책 읽는 공군 | 프레임 |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Pioneer's Opinion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전략

글쓴이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디노커뮤니케이션, BBDO, 오버추어, 11번가 등에서 디지털기반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과 광고상품 기획, 제안 업무를 주로 진행했다. 현재는 CJ E&M 브랜드 스토리텔링 전문 조직인 ALIVE 내에 디지털캠페인랩을 맡고 있다.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한다. 광고, 홍보 등을 통해 구축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 마음은 물론 내부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조직원들이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마케팅, 더 좋은 시스템을 위해 움직이게 한다. 공군을 포함한 군조직의 경우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고 군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통한 조직의 사기 진작이 중요할 것이다.

최근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조직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정책 및 제도 공유, 의식 고취 등을 위해 대중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메시지를 전달할 대중과 미디어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지부터 너무나 막막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비단 군뿐만 아니라 일반 브랜드 마케팅들에게도 이 부분은 끊임없는 도전과 숙제가 되고 있다. 군과 일반 브랜드는 분명 다르겠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목적은 같기에 수년간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고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소통의 프레임 만들기

프레임은 세상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나 하나의 관점을 바꾸면 고작 내 인생을 바꾸겠지만 대중의 일관된 관점의 변화는 조직을,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 많은 브랜드들,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과 일하다 보면 언제나 이 부분이 아쉽다. 예산에 맞게 단발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들은 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방향 없이 단발적인 메시지와 재미를 전달하기에 급급하고, 이쪽저쪽의 의견과 일정, 예산 등에 쫓기면서 처음 의도와도 점점 멀어지고 만다. 우리 조직은 대중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 줄 것인가? 그들에게 원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인가? 언제나 맨 꼭 대기에서 고민하고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정하는 일들이 소통의 시작이자 완성이 아닐까 싶다.

○ 믿음직한 파트너를 찾자

마케팅 패러다임의 지속적인 변화로 브랜드 마케터들은 알아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너무 많다. 디지털은 정말 살아있기라도 한 듯 끊임 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세분화되고 있으며, 세분화된 각각의 영역이 모두 전문적이어서 따라가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각각의 영역에서 한 몫을 맡아줄 믿음직한 파트너가 중요하다. 혼자 모든 것을 하려는 순간 몸과 마음이 고달파지고, 디테일에 갇히면 소통의 프레임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전체적인 프레임을 기반으로 변치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파악하고, 내가 할 것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릴 것을 판단하고 제대로 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살아있는 콘텐츠를 만들자

디지털 시대에 좋은 콘텐츠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콘텐츠가 아닌 공유되고,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해 공감되고, 또한 소비자들의 아이디어나 경험이 가미되어 재생산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콘텐츠가 아닐까 싶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언제나 진지하다. 공공 기관이나 군조직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대중 입장에서 콘텐츠는 볼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재미든, 감동이든, 정보든지 내가 필요한, 나를 기쁘게 할 무언가가 있다면 광고여도 상관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젊은 소비자들의 인식이다.

○ 더 나은 실패를 하라

대중에게 전달할 장기적 프레임을 만들고 좋은 파트너와 함께 공감 콘텐츠를 만들었다 해도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르다. 콘텐츠를 만들고 대중들의 반응을 살피다 보면 나의 예상과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위 먹힐거라 예상했던 부분은 냉담하고, 기대치 않았던 부분에서 예상 밖의 공감과 댓글이 발생하는 등 군인과 민간인, 남과 여, 어른과 아이 만큼이나 다양한 차이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경험들이 거듭되면서 다수의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향이 정립되고 브랜드 자산이 쌓여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도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이미 많은 활동들을 잘 하고 있지만 위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좀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브랜드가 공감을 통해 대중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날씨와 공군,
떨어야 떨 수 없는 관계

글·편집
대위 이상우(홍보과)



사진
중사 조수민(홍보과)

취재지원
대위 심국보(기상단)



정확한 기상예보는 공군 항공작전 성공의 첫걸음!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외출하기 전에 한번쯤 확인하는 것은 아마 오늘의 날씨일 것이다. 맑을지 흐릴지, 비나 눈이 올지, 혹은 추울지 더울지에 따라 그날 입을 옷에서부터 이동수단, 스케줄 등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물도 날씨에 영향을 받으며, 생활습관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날씨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날씨는 예로부터 전쟁의 승패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쳐왔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군은 태풍을 만나 그리스에 패하였으며, 전쟁의 신이라 불리며 유럽 전역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역시 러시아 원정에서 혹독한 추위 때문에 퇴각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General Winter' 즉 '동장군'이다.

현대에도 전쟁에 미치는 날씨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6·25전쟁에서 맥아더 장군은 정확한 태풍진로 예측과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오히려 과거보다 현대전에서 기상은 더욱 중요해졌다. 고성능의 최첨단 무기체계들은 기상여건에 따라 때로는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며, 일정 조건의 기상요건이 갖춰줘야 운용되는 장비도 있다.

모든 군이 기상의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의 항공기를 주요전력으로 운용하는 공군은 날씨와 떨려야 떨 수 없는 관계이다. 항공기는 3차원 공간인 공중에서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날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행기지 지역부터, 이동경로, 임무수행 구역을 통틀어 항공기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기상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온의 높고 낮음은 공기밀도에 영향을 미쳐 항공기 이·착륙 거리가 달라지게 만든다. 또 작전구역의 기상여건에 따라 항공기 기동가능 범위가 정해지기도 하며,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최신 정밀유도무기체계도 기상예보에 따라 오차범위가 달라지곤 한다. 때문에 공군이 항공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상이며, 작전구역에 대한 정확한 기상예보가 필수적이다.

전군 유일의 기상전문부대, 공군기상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군은 전력운용 특성상 다른 군에 비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일찍이 이러한 기상 중요성을 인식하고 6·25전쟁 때부터 작전기상을 전담하는 부대를 운영해오고 있다. 공군본부 직할부대인 '공군 기상단(이하 '기상단')은 1950년 7월 27일 공군본부 기상대로 창설되었으며, 발전을 거듭해오다 2012년 1월부터 지금의 조직체계로 이어오고 있다. 기상단은 군사작전에 특화된 정확한 기상예보를 생산하여 공군이 대한민국 영공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도록 완벽한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기상단의 예보능력은 6·25전쟁에서부터 빛을 발했다. 그 당시 공군 기상요원들은 한반도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상분석을 통해 외국군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정확성 높은 예보를 생산했으며,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던 미군과 협력하여 전쟁기간 중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지원하였다. 특히 2006년 12월 1일에는 미군이 수행하던 한반도 전역에 대한 연합작전 기상지원 임무를 한국군이 인수했다. 미군은 군사작전에 있어 기상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해 세계 어디서든 타국과의 연합작전에서 기상 예보를 미군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 미군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큼 기상 예보권을 한국군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공군기상단이 높은 수준의 예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기상단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장비들은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2011년 4월에 전력화한 고성능 슈퍼컴퓨터와 독자적인 기후예측모델을 개발해 기상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2017년 4월에는 기존보다 약 22배 높은 성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2호기가 전력화될 예정이다. 슈퍼컴퓨터는 엄청난 규모의 저장 공간과 업무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한 번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새로 전력화될 2호기는 1초에 535조번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변수를 계산하고, 기상분석 단위 면적을 세밀화할 수 있게 된다.(1호기 예보분해면적 : 4km×4km, 2호기 예보분해면적 : 1km×1km)





공군 IN

기획특집 1

날씨와 공군,
멜레야 땀 수 없는 관계



군사작전에 특화된 기상예보는 어떻게 생산되는가?

기상단의 주임무인 기상업무는 관측, 분석, 생산, 지원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관측 방법에는 지정된 관측소의 장비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지상관측', 일반 기상요소 외에 구름의 높이, 구름의 양, 활주로 가시거리 등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별도로 관측하는 '항공기상관측', 기상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자료를 활용하여 구름 상태를 관측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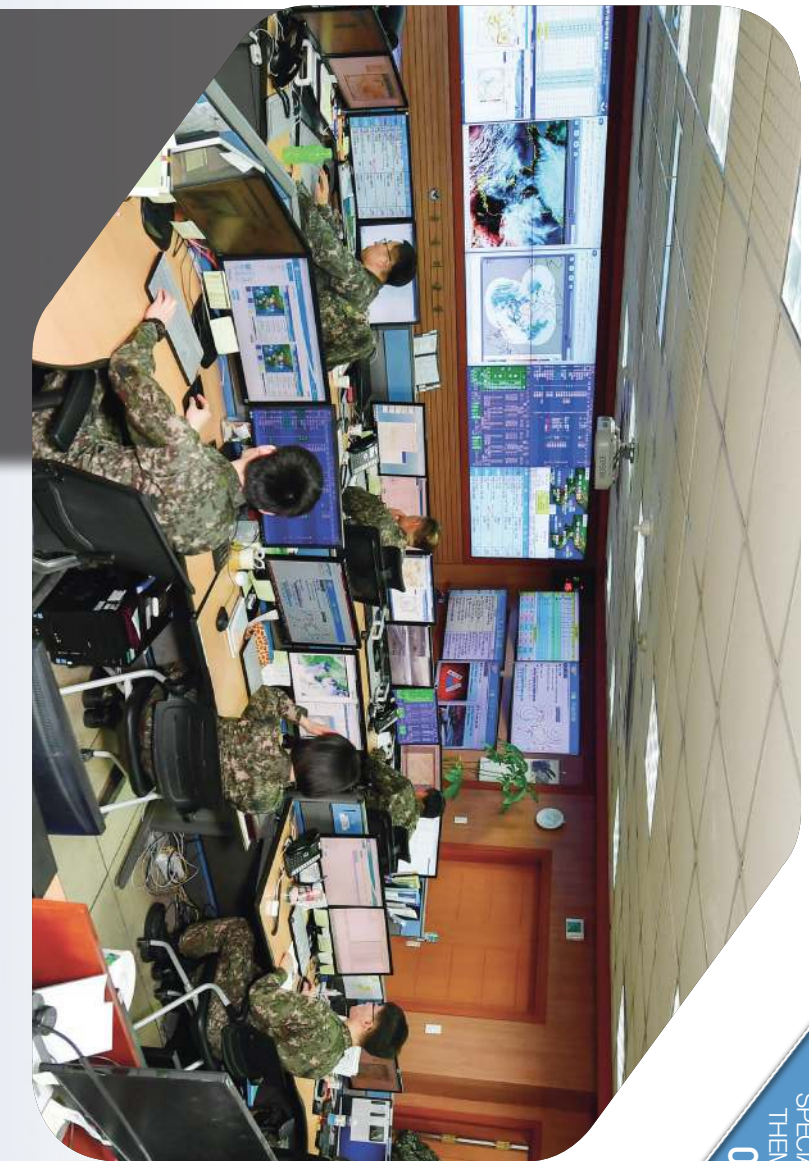
'위성관측', 전국 9개 지점에 위치한 공군레이더에서 기지별로 관측되거나, 한반도 전 영역으로 합성되어 관측되는 '레이더관측' 등이 있다. 이밖에도 공군 각 비행단에서 일일 첫 비행임무에 투입되는 항공기가 실제 기상상태를 관측하는 'Weather ship' 임무도 있다.

이렇게 관측된 여러 가지 기상데이터와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전송되는 전 세계의 기상관측 자료가 기상단 슈퍼컴퓨터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수치예보로 생산된다. 기상자료는 자체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상청, 미 공군, 유럽연합(EU), 일본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분석되며, 이를 통해 예보의 정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기상예보를 위한 자료에는 슈퍼컴퓨터의 수치예보뿐만 아니라 일기상황, 일기도, 위성분석자료, 레이더분석자료 등이 있다. 기상단 예보관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지식과 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보토틀을 거쳐 작전 요구도에 맞는 최종 기상예보를 생산한다.



기상단 예보관의 최종예보 > 최첨단 슈퍼컴퓨터의 수치예보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통해 전 세계 기상데이터에 기반을 둔 수치예보 자료가 생산되지만, 이 자료가 100% 정확한 예보라고 할 수 없다. 관측 장비로 관측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입력 자료의 작은 오차가 실제와 다른 기상예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군 기상예보관들은 이러한 기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욱 정확한 기상예보를 생산하는데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지역은 지형적 특색이 강해 슈퍼컴퓨터의 수치예보와 실제 기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차이를 메우고 최종예보를 생산하는게 바로 예보관들의 능력이다. 예보관들은 특정 지역마다 나타나는 날씨 행태, 과거사례, 한반도 주변지역의 기후영향, 도심지역 등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군 작전 수행에 요구되는 소요에 맞게 최종예보를 생산한다. 영공감시를 수행하는 방공관제요원처럼 기상 예보요원도 24시간 교대 근무를 통해 기상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공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날씨는 끊임이 없다보니 지속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예보관들은 쉬는 날에도 항상 날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공군을 넘어

전군·대외기관에도 기상예보를 지원하는 기상단

생산된 예보는 단순한 오늘의 날씨가 아니라 그 쓰임새에 따라 오늘/내일 예보, 주간/월간예보, 계절예보 등 예보시점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고 기지에보, 전국예보 등 지역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사용목적에 따라 기상특보, 항공작전예보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또한 기상단은 공군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국방부, 합참,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상위부대와 육해군 및 해병대에도 기상예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육군의 포사격과 해군에 함포사격작전을 위한 기상지원은 명중률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별도의 장비로 제한된 지역의 기상만 측정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기상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방기상지원체계를 통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기만 하면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육군과 해군의 포사격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88서울올림픽, G20 정상회담, 2002 월드컵, 나로호 발사 등 국가 주요행사와 태풍 등 재난 및 제해 발생 시에도 기상예보를 지원해 왔으며, 2012년 9월에는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나라 기상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상단은 2015년 7월 1일부터 군사목적으로 북한지역에 특화된 예보생산 체계를 구축해 높은 정확도를 갖는 북한지역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기상예보 획득은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제공되는 특정 지점의 관측 자료로,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북한이 관측 자료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예보생산이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지역 기상예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했으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기상예보기 가능해졌다. 북한지역 기상예보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적의 군사작전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시에에도 북한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임무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게 되었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날씨와 공군,
떨레야 떨 수 없는 관계

취재
대위 이상우(홍보과)

사진
중사 조수민(홍보과)

“더욱 정확하고 적시적인 기상예보 지원을 위하여” 공군기상단 단장 인터뷰

AF

날씨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공군에서 기상요소는 왜 중요한가요?



기상단장

항공작전에 있어 기상은 임무 기획 단계부터 최종 수행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비행안전과 작전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공작전은 일반 날씨 예보에는 포함되지 않는 여러 기상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 어느 방향의 활주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 비상탈출한 조종사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수온에 따른 조종사 생존가능시간, 의식지속시간에 대한 정보, 눈·비 등에 의한 활주로 상태, 항공기 결함을 야기할 수 있는 착빙이 형성되는 고도 정보, ‘족집게 폭격’을 하는 유도탄과 같은 정밀무기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밀도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군은 공중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항공무기 체계를 수직 및 수평적으로 무한히 이동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 기상은 물론, 항공 작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이라면 해상, 공중을 망라한 전 지구적 차원의 기상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AF

일반사람들이 접하는 생활예보와 군 기상예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상단장

상공 2만~3만피트(약 6000~9,000m) 사이에 8천피트(약 2,400m) 두께의 구름이 있을 경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맑은 날씨이지만, 3천피트(약 900m) 기동공간을 필요로 하는 항공 작전에 있어서는 임무가 불가능한 기상상황입니다. 이렇듯 군 기상예보는 일상생활과는 다른 군 작전환경에 맞는 기상 정보를 생산하고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군기상단은 군사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작전임무 중심의 국지적인 기상예보를 생산하는 특수 기상 업무 조직입니다. 즉, 기상청에서 전국 차원, 또는 도시 위주로 예보를 생산하는 것과 달리 기상단은 주로 공군기지를 포함한 군 작전 관련 지역예보와 표적 중심의 특화된 고가치 기상 정보를 중점적으로 생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군기상단 단장 대령 박재홍〉

기수 _ 공사 36기

주요경력

前 작전사령부 기상대대장

前 기상단 중앙기상부 부장

前 국방정보본부 지형기상정책과장

2016년 10월 28일 ~ 공군기상단 단장

AF

기상단에서 공군 장병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상단장

기상단은 군 작전에 특화된 기상예보를 생산하고 지원하지만, 일반 장병들을 위한 기상상식 제공 등 관련 지원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와 홍수, 가뭄, 폭염과 같은 기상현상 혹은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로 인한 군내 인명·시설 피해는 곧 국방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이를 미리 예측하고 전파하여 군이 재난에 대비하게 하는 것 또한 기상단의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공군 내부망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유용한 기상정보도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큼니다. 기상과 관련된 흥미 위주의 내용도 있지만, 최종 목적은 장병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 기상과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드름 관련 기상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드름이 형성되는 조건이나 고드름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도 있지만, 고드름이 형성되기 쉬운 기상조건에는 보행 시 혹은 작전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착안사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F

공군기상단에서 우주기상에 대한 예보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래 우주기상의 중요성과 기상단의 우주기상 예보 전력발전 계획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상단장

최근 군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GPS항법위성, 정찰위성, 조기경보레이더, 각종 무선통신장비 및 정밀유도무기는 태양입자 폭풍, 전리층 변화 등 우주기상 변화에 따라 기능저하, 장애, 고장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전 및 미래전에서는 우주작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공군기상단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기상예보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주기상 예보·경보체계 전력화 추진을 목표로 2018년 우주기상팀, 2024년 우주기상대 창설을 계획하는 등 우주기상 예보능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F

올해 기상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상단장

공군기상단은 '군사작전에 기여하는 기상단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돌변기상 예보정확률 향상 및 선제적 작전기상지원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슈퍼컴퓨터 2호기 전력화, 수치예보모델 활용 예보지침서 보완,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예보 정확률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국방 기상업무 전략 수립 및 기상분야 미래 비전 제시 기반 확립을 위해 9월에 한·미 국방 기상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기상예보 기술 발전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AF

끝으로 공군지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기상단장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점증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기상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상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날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가의 무기체계와 전력 운용에 요구되는 군 기상 지원을 위해 공군기상단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졌음을 뜻합니다. 앞으로 공군기상단은 군 작전에 특화된 고가치 기상정보 생산과 더욱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기상예보 지원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더욱 정진해나갈 것입니다. AF

공군의 기상전문부대
공군기상단



봄의 불청객, 변덕쟁이 봄 날씨에 주의하세요.

씨앗 속에 들어 있던 생명이 피어나고, 꽃망울이 얼굴을 드러내는 계절. 월별로 봄을 예찬하는 문구가 따로 있을 만큼, 봄은 우리나라 사계절의 시작에 걸맞은 아름다운 계절이다. 그러나 봄이 항상 싱그럽고 화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봄은 겨울 동안 영향을 미치던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힘이 약해져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의 변동성이 커져 날씨가 자주 변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봄 날씨가 변덕스러움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된 것이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강풍과 일교차다. 커다란 기단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여름·겨울과는 달리, 봄에는 이동성이 큰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발생한다. 길어지는 해와 건조한 대기는 커다란 일교차를 발생시킨다. 강풍은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이고, 큰 일교차도 호흡기 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등 건강관리에 큰 장애물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봄은 겨울 동안 얼어있던 땅이 녹는 해빙기이다. 땅 속에 얼어있던 수분이 녹으면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 옹벽이나 축대가 무너지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급경사지 붕괴사고 10건 중 7건이 해빙기 시기에 집중된다고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 사고가 봄철에 집중돼 있는 것도 (서울시 도로관리과 집계) 해빙기와 무관하지 않다. 봄철 대비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봄철의 가장 큰 불청객은 뭐니 뭐니 해도 황사가 아닐까. 황사는 중국 북동부 지역과 내몽골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현상이다. 본래 황사는 많은 영양분을 포함한 모래먼지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등 유익한 점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동반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은 공해로 여겨진다. 미세한 황사입자는 정밀기계에 쉽게 흡입돼 고장을 일으키고,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근래에 들어 3월과 5월의 황사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내몽골지역에서 증가하는 염소

방목이 꼽히고 있다. 이 염소들은 고급 의류의 소재로 쓰이는 캐시미어를 생산하기 위해 길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황사 발원지 중 한 곳인 내몽골지역의 고비사막 지역은 전 세계 캐시미어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섬유의 보석'이라 불리는 캐시미어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염소 방목이 증가하고, 초지가 황폐화되면서 황사 발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현지 나무심기 사업 등을 통해 사막화를 멈추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황사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에 가장 높지만, 봄에도 황사의 영향을 받는 날이면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 호흡기관에 쌓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거나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형태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폭염, 한파와 같은 극한기상에 대한 위협이 비교적 적은 시기이다. 하지만 그 변덕스러움 때문에 다양한 안전 위협 요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날씨예측이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기상단은 정확한 예보 생산과 적시 지원을 통해 기상예에 의한 군 내외 사고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군사 작전 수행에 기여하고자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AF**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석약처 인증) 착용하기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비교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평시 환기	조리시 환기
· 실내외온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 (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
· 하루 3번 30분 이상 오전 10시~오후 9시 환기 실시	·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실시
·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청문을 통한 환기 실시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자료출처: 환경부)



공군 IN

기획특집 2

공군 최초
블랙이글스 형제 조종사 탄생

글·편집
대위 이상우(홍보과)

사진
상사 편보현(공보과)



공군 조종사들의 로망, 블랙이글스에 형제 조종사가 탄생하다!

대한민국 공군에는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로 고난도 에어쇼를 선보이는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 있다. 국내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세계 3대 에어쇼로 불리는 영국에어쇼(와딩턴, 리아트, 판보로)와 싱가포르에어쇼에서 화려한 비행을 선보이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과 공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의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공군에서 단 8명의 정예 조종사로만 운영하는 팀이다 보니 조종사를 꿈꾸는, 혹은 조종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되어보고 싶은 선망의 자리가 블랙이글스 조종사이다. 블랙이글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총 비행시간이 800시간 이상이며, 비행 교육과정 성적 상위 1/3 이상, 항공기 4기를 지휘할 수

있는 편대장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8대의 항공기가 800km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면서 2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초근접 비행을 하는 고도의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블랙이글스 조종사를 선발하는데 있어 기존 팀원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아무에게나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블랙이글스에 공군 최초로 형제 조종사가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53특수비행전대 239특수비행대대 강성현 소령(공사 53기, 37세)과 강성용 대위(공사 56기, 33세) 형제. 제주도의 푸른 하늘을 보며 어릴 적부터 조종사의 꿈을 함께 키워 왔다는 형제의 우애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같은 길을 걸어오고 있는 공군 형제 조종사, 강성현 소령·강성용 대위

AF_먼저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성현 소령 저는 공사 53기 사관생도로 입교하였으며, 2005년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2년여의 비행훈련을 마치고 전투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KF-16을 주기종으로 19전비에서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16전비에서 후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TA-50 교관 조종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블랙이글스로 선발이 되어 현재 53전대 239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용 대위 저는 공사 56기 사관생도로 입교하였으며, 형의 뒤를 이어 KF-16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38전대에서 근무하다가 블랙이글스 조종사로 선발이 되어 2017년 2월 3일,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특수 비행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AF_블랙이글스 최초로 형제 조종사가 탄생했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강성용 대위 블랙이글스는 공군 전투조종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꿔 오는 자리입니다. 저 또한 그 꿈을 계속 소망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블랙이글스 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8명의 팀원이 각자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저에게 '블랙이글스 최초 형제 조종사'라는 타이틀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형제 조종사라는 타이틀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하지만 이곳에서는 블랙이글스의 한 조종사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군 IN

기획특집 2

공군 최초

블랙이글스 형제 조종사 탄생

AF_형에 이어 블랙이글스 조종사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강성용 대위_이곳에 도전했던 이유는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투조종사로서 공군, 나아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고 도전하였습니다. 결국 그 꿈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AF_공군사관학교, 전투조종사, 블랙이글스 조종사까지 본인이 걸어온길을 동생도 똑같이 걸어오고 있는데 형으로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강성현 소령_전에는 마냥 어린 동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점점 자기 위치에서 인정받고, 형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동생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선발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블랙이글스 팀원이 된 동생을 보면 더욱 대견한 마음이 드네요.

AF_강성용대위에게 있어 형 강성현 소령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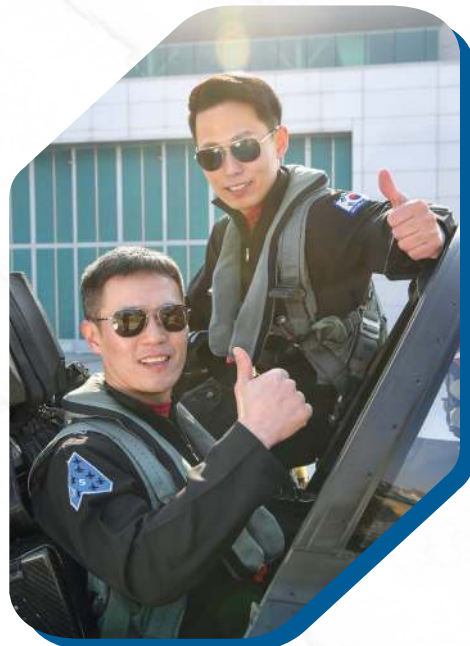
강성용 대위_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형은 어려울 때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된 것도 형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군 내에서 같이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뒤에 든든한 아군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AF_이것만큼은 형보다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게 있나요?(웃음)

강성용 대위_형만한 아우가 없다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은 운동, 공부 모두 뛰어납니다. 심지어 인간관계도 뛰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동차 운전은 제가 더 잘 한다고 인정받았습니다.(웃음)

AF_강성현 소령은 블랙이글스 조종사로서의 임무중요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블랙이글스 조종사로 지내온 소감은 어떤가요?

강성현 소령_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비행이었지만 환호해 주시는 관객 분들을 볼 때, 그라운드 세레모니를 끝내고 많은 분들이 사인을 요청하시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블랙이글스 조종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비행 하나 하나가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한데 이제 후임에게 넘겨주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저보다 훨씬 훌륭한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갈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AF_앞으로 블랙이글스 조종사로서

활약할 동생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강성현 소령 행사를 하다보면 많은 관중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멋진 비행을 보여드리기 위해 욕심이 생기기도 할 텐데, 항상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과욕부리지 않는 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AF_블랙이글스 조종사 임무종료 후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강성현 소령 윤이 좋게도 해외 위탁교육에 선발이 되어 올해 7월경 독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가서 많은 군사지식과 소양을 쌓아서 귀국 후에 국가와 공군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무종료 후에도 블랙이글스 팀의 안전비행을 항상 기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F_블랙이글스 조종사로서의 임무를 마친 형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강성용 대위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그동안 정말 멋진 기동을 보여줘서 고맙고, 공군 후배 이자 같은 조종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힘든 특수 비행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 존경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으로서 얘기한다면 “역시 우리 형이네”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AF_최근 정식 블랙이글스 조종사 훈련을 모두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성용 대위 먼저 부족한 남편 뒷바라지 해주느라 정말 고생이 많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규정과 절차를 지키며 안전하게 비행하겠습니다. 블랙이글스 팀원 모두와 53특수비행전대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동반자로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실력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블랙이글스의 팀워크는 이러한 서로간의 강한 신뢰를 통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블랙이글스 8번기 조종사로서 국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블랙이글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AF**





공군 IN

포토 프레임 @AF

구성·편집
대위 이상우
(홍보과)

사진
상사 정연길
(비서실)



공군을 빛낸 인물 및 최우수조종사 시상식

참모총장은 1월 31일(화),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공군을 빛낸 인물, 최우수조종사, 보안감사 우수부대 시상식 등을 주관하고 수상부대 및 수상자를 격려하였습니다. 참모총장은 “그동안 묵묵히 임무완수에 헌신진력하면서 공군의 발전에 기여해 온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정성과 남다른 열정으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최강의 정예공군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17-1차 고등비행교육 수료식 주관

참모총장은 2월 9일(목), 제1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된 '17-1차 고등비행교육 수료식'을 주관하고 신임 조종사들과 비행교관, 지원요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공중전투 전문가가 되어줄 것"을 강조하고, "청렴하고, 정직하며, 공정하고, 군 기강이 살아있는 공군의 리더로서 높은 수준의 품성과 윤리를 갖추도록 항상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대비태세 현장지도

참모총장은 2월 2일(목), 제8948부대와 제8983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2월 14일(화)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제38전투비행전대와 美 제8전투비행단을 찾아 연합 영공방위 태세를 점검하였고 이어 제8351부대를 찾아 24시간 공중감시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한국공항공사,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기금 기증식

참모총장은 2월 10일(금), 공군본부를 방문한 한국공항공사 성일환 사장(예비역 대장, 제33대 공군참모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기금 기증식을 주관하였습니다. **AF**





March 2017 www.airforce.mil.kr



공사, 통일부장관 특강

공군사관학교는 2월 3일(금) 부대 전 장병 및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홍용표 통일부 장관 특강을 진행하였다.



공중전투사, 공군 핵심가치 '도전의 날'

공중전투사령부는 2월 1일(수) 공군 핵심가치 '도전' 생활화를 위한 핵심가치 결의대회, 기지외각 도보 등을 진행하였다.



1전비, '16-2차 F-5E/F 전환 및 작전가능훈련과정 수료식

제1전투비행단은 2월 8일(수) '16-2차 F-5E/F전환 및 작전 가능훈련과정(CRT)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3훈비, 명사 초청 문인화 특강

3훈비는 2월 8일(수) 정재상 화백을 초청하여 장병들의 인문학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문인화의 역사와 작품' 교육을 실시하였다.



5비, 쾌적한 생활관 조성을 위한 병영생활 지도점검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2월 7일(화) 주임원사단과 병사 자율 위원회 주관으로 쾌적한 생활관 조성을 위한 병영생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10전비, '17-1차 전투태세훈련

제10전투비행단은 2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17-1차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하였다.



11전비, 활주로 폐쇄처리절차 훈련

제11전투비행단은 2월 13일(월), 항공기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활주로 폐쇄 시 신속한 상황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활주로 폐쇄처리절차 훈련을 실시하였다.



16전비, 전입신병 부모초청행사

제16전투비행단은 2월 10일(금) 공군 병영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입신병 부모초청행사를 실시하였다.



17전비, 구제역 방역 지원

제17전투비행단은 2월 14일(화) 부대 인근지역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작업을 지원하였다.



18전비, 나눔사랑 노인급식 봉사활동

제18전투비행단은 2월 6일(월) 부대 인근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나눔사랑 노인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19전비, 사랑의 헌혈

제19전투비행단은 2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나눔 실천으로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였다.



20전비, 맞춤형 복지 협력기관 현판 인수식

제20전투비행단은 2월 13일(월) 부대 인근 마을회관에서 인근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협력기관 현판 인수식을 진행하였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3

사진 왕초보 탈출하기,
봄나들이 사진 잘 찍는 법

글·사진
상사 이호준
(17전비 정훈공보실)



편집
대위 이상우(홍보과)

장소지원
세계꽃식물원



사진 왕초보 탈출하기, 봄나들이 사진 잘 찍는 법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나듯, 겨우내 '이불 밖은 위험해'를 외치며 집에만 있던 사람들도 만연한 봄기운을 느끼기 위해 야외활동이 많아진다. 특히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봄나들이 명사로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곤 하는데, 아름다운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사진 찍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휴대폰 카메라가 대중화되고, DSLR(Digital Single Lens Reflex: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카메라도 어느 정도 일반화되면서 전 국민이 사진작가인 시대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비싼 돈 들여 구입한 DSLR 카메라를 두고 아직까지 자동 모드로만 촬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마구 셔터를 눌러봤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준비해보았다. 이번 봄나들이에서 가족에게, 혹은 연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진 잘 찍는 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본격적인 촬영방법 소개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카메라 기본 기능이 있다. 바로 '조리개'와 '셔터'이다. 사진은 렌즈를 통해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 빛을 조절하는 게 '조리개'와 '셔터'이다. 뒤에서 소개할 촬영기법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조리개'는 사람의 눈에서 홍채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구멍의 크기를 조절해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카메라에서 'f/숫자'가 조리개 설정값이며, 조리개 구멍이 클수록 숫자가 작고, 조리개 구멍이 작아질수록 큰 숫자를 갖는다. '셔터'는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조절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때 빠른 셔터 속도는 동작을 멈추게 하고, 느린 셔터 속도는 움직임을 흐릿하게 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두 가지 설정을 기본으로 자동 모드에서 탈피한, 좀 더 고급스럽고 멋진 사진을 담아낼 수 있는 촬영기법을 알아보자!

인물을 한껏 부각시킬 수 있는 ‘아웃포커스’ 기법

우리말로 ‘배경흐림’인 ‘아웃포커스(Out of focus)’ 기법은 촬영 대상 이외의 배경이 흐려 보이는 상태로 표현되는 촬영방법이다. 촬영 목적에 따라 사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똑같은 사진이라도 아웃포커스 효과를 주면 훨씬 멋진 사진이 된다. 보통 인물사진을 촬영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이 효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사진 왕초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조리개 우선 모드(카메라에 A 또는 Av 모드)’에서 조리개 값을 작게 하여 촬영한다.

- 아웃포커스 효과로 촬영한 사진
(조리개 f/2.8, 셔터 속도 1/250)
‘조리개 우선 모드’는 조리개 값에 따라
기타 설정을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초보자라도 낮은 조리개 값만 설정한다면
아웃포커스 효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웃포커스와 반대되는
촬영기법을 ‘팬 포커스(Pan focus)’라고
하는데 화면의 모든 부분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촬영하는 방법이다.



- 팬 포커스 효과로 촬영한 사진
(조리개 f/11, 셔터 속도 1/50)
아웃포커스로 촬영한 사진과 팬
포커스로 촬영한 사진의 조리개
값을 비교해 보면 f/2.8과 f/11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경
전체를 선명하게 찍고 싶다면
조리개 값을 높여 팬 포커스로
촬영하고, 배경보다 인물을
부각하고 싶다면 조리개 값을
낮춰 아웃포커스로 촬영한다.



움직이는 물체를 생동감 넘치게 찍는 방법 '패닝샷'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 운동선수들의 순간적인 모습 등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때 생각처럼 선명하고 멋진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 독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움직이는 물체, 즉 동체를 촬영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설정은 셔터 속도이다. 동체 촬영에 주로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로 '패닝샷'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촬영하게 되면 동체는 멈춰있고 배경을 흐리게 하여 더욱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 패닝샷 기법으로 촬영한 사진

(셔터 속도 1/50, 조리개 f/11)

패닝샷 촬영방법은 '셔터 속도 우선 모드(카메라에 T 또는 Tv 모드)'로 동체의 속도와 진행방향에 맞춰 카메라를 이동시키며 찍는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셔터 속도인데, 물체와의 거리, 속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30에서 1/60 사이의 셔터 속도로 촬영하면 괜찮은 패닝샷을 얻을 수 있다.



- 순간포착 사진(셔터 속도 1/250, 조리개 f/6.3)

패닝샷과 반대로 움직이는 물체가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순간적인 모습을 촬영하고자 한다면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여 촬영한다. 셔터 속도를 높이면 조리개를 포함한 기타 설정을 통해 빛의 양을 확보해야 하지만 셔터 속도 우선 모드로 촬영한다면 기타 설정을 자동으로 맞출 수 있다.

주제에 따른 사진 구도

본인이 원하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구도로 촬영할 수 있는데, 부각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촬영대상의 위치를 변경해보면 어떨까? 피사체(인물)를 부각하고 싶다면 대상을 가까이에 두고 앞에서 배웠던 아웃포커스 효과로 촬영하고, 피사체(인물)도 촬영하지만 배경을 좀 더 부각하고 싶다면 대상을 멀리 두고 팬 포커스 효과로 촬영해보기 바란다.



1. 아웃포커스로 뒷배경을 날리자.

망원렌즈를 사용하거나 조리개를 개방하여 배경을 날려버리면 배경이 단순해져 꽃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망원렌즈를 사용하면 꽃을 압축해 담을 수 있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사진을 담을 수 있다.



봄맞이 '꽃' 사진 촬영 꿀팁(중급자편)

초보자들을 위한 내용에 불만인 중급자들을 위해 심화과정을 준비해보았다. 필자가 봄철에 야외 출사를 다니며 찍었던 사진과 기법을 소개한다.



2. 꽃만 찍을 것인가?

꽃 주변에는 벌이나 나비 같은 또 다른 조연들이 있다. 꿀벌들은 초당 300회 이상의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셔터 스피드를 이용하여야 한다. 수천분의 1초로 촬영을 해야 꿀벌들의 움직임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

3. 배경의 단순화

꽃이 아무리 화사한 색깔을 가졌더라도 배경이 복잡하거나 어지러우면 결코 아름다운 장면을 얻을 수 없다. 아웃포커스로 배경을 날리는 방법도 있지만 꽃 주변을 잘 살펴 최대한 단순화할 수 있는 배경을 찾아 셔터를 누르면 남들과 차별화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4. 배경은 어둡게

배경이 어두울수록 꽃은 더욱 부각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배경이 검을수록 노출 차이가 심하게 날 수도 있으니 반드시 spot측광 모드를 사용하거나 꽃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노출값을 찾아야 한다. **AF**



공군 IN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

글·사진
양낙규
(아시아경제 정치부기자)



공군지에서는 이번호부터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본 공군의 모습을 들여보는 코너로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처음 시작으로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가 공군을 취재하며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와 느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 기자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국방부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9년간 80여 개 군부대를 취재하며 체험담을 기록한 '군을 말하다'를 출간하였습니다.

일일 전투조종사 체험,
그 잊지 못할 짜릿했던 순간



1986년 잊지 못할 영화 '탑 건 (Top Gun)'. 이 영화는 여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만들었다. 영화 속 전투기와 오토바이의 엔진 굉음은 남성들의 야성미를 자극하기 그만이였다. 2012년 10월, 시간이 흘러도 굉음을 잊을 수 없던 기자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비행환경적응훈련을 3번을 받으며 기다렸던 행운이였다. 언론사 최초로 F-5전투기 비행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고대하던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찾아간 공군 8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도착하자 F-5전투기가 세련된 몸매를 드러냈다. 전투기 탑승 2시간 전, 기자의 신체크기와 맞춘 G슈트(정식명칭은 Anti-G슈트)를 입었다.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는 어린아이만큼이나 가슴이 뛰었다.



중력이 걸리는 순간 G슈트 허벅지 부분에 공기가 차오르고 온몸은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하지 못했다. 고개도 돌릴 수 없었다. 목에 통증까지 몰려왔다. 25초간 기동회피가 끝나자 이번엔 반대방향 기동이 시작됐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허벅지에 피가 몰렸다. 피의 하체 쏠림현상을 막으려 특수호흡법을 시도했지만 신음소리만 나왔다.

그저 조종석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40분간 이어진 기동훈련 끝에 반가운 목소리. “기동훈련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제야 온몸에 긴장감이 풀렸다. 활주로에 착륙하고 캐노피가 열렸지만 좌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탓이다. 좌석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동갑내기 F-5 전투기에 키스를 했다. 나를 지켜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하며 저 높은 곳에서 우리 조국을 지켜왔다는 고마움이었다. **AF**

비행기 이륙 20분 전. 전투기가 느림하게 서 있는 격납고(이글루)로 향하자 좀 전의 설렘은 긴장감으로 변했다. 조종사는 다가와 “전투기조종사, 기자, 전투기 모두 75년생 동갑”이라고 애써 웃음 지으며 안심시켜 주었다. 하지만 2,300시간 비행을 한 베테랑 조종사와 1만 1221시간 비행을 한 전투기와 달리 처녀비행인 기지는 엄연히 달랐다.

드디어 이륙. 엔진출력을 최대한로 높여 속도를 내자 몸이 좌석으로 밀착됐다. 일반 민항기의 압박감에 3배 이상이었다. 이륙 10분 후 시야에 강원도 평창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풍경을 느끼는 것도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을 뚫고 2만 피트(약 6km)까지 올라간 전투기는 훈련에 돌입했다.

“에코 원, 공격기동 준비하라”. 마음의 준비를 갖출 여유도 없었다. 조종사가 “고(Go)”라며 짧은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 기자의 스틱은 뒤로 밀리고 전투기가 급선회하는 기동훈련이 시작됐다. 중력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중력을 측정하는 단위는 지구의 중력(重力) 가속도로 일명 G(gravity)다.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1G, 놀이공원 바이킹을 탈 때는 최고 2G 정도를 느낀다. 이날 걸릴 G는 5.8G다.





공군 IN
조인, 조인!

글
안상훈(공감기자 1기)
사진
종사 조수민(홍보과)



취재지원
대위 이상우(홍보과)

본격 공군 인재등심 충전 프로젝트!
빛나는 공군 예비역 다 모여라!!

소방

조인!
鳥人

제10화

서초소방서 예방과 '최재구' 소방교

하늘을 동경했던 청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되다.
서초소방서 예방과 최재구 소방교(학군 29기)

프로로그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는 대한민국을 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한 사람이 저지른 방화는 192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48명의 부상자를 남긴 참사로 기록되었다. 그로부터 1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참사 현장에서 전해졌던 모습들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깊게 남아있다. 많은 이들이 필사적으로 현장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가장 깊숙한 곳으로 용감히 뛰어들어 사람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불길을 잡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이들을 소방공무원, 짧게는 소방관이라고 부른다. 14년 전 그날, 공군 조종 장교로 복무하던 한 청년 역시 참사와 얽힌 작은 우연으로 소방관의 길에 눈을 뜨게 되었다.

새해 입춘이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쌀쌀한 2월의 어느 날, 서초소방서를 찾았다. 공군 장교로 조국의 하늘을 지켰던 사나이는 현재 서울 한복판에서 또 다른 위험에 맞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학군 29기, 공군 예비역 대위 최재구 소방교를 만나보았다.

나의 일이 될 뻔 했던 끔찍한 사고, 새로운 길에 눈을 뜨다

“저는 원래 조종사가 꿈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했었죠. 제가 대구에서 군생활을 하던 중에 대구 지하철 화재가 있었어요. 그 때 사고가 났던 그 지하철에 탑승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앞의 열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참사로 다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소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날의 사고는 그에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진다면, 내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는 화두를 던졌다. 최재구 소방교가 처음 소방관의 길에 관심을 갖게 만든 그 해에는 다른 재난도 닳쳤다. 2003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어마어마한 바람을 몰고 온 태풍 ‘매미’가 남해안에서 동해안을 휩쓸었다. 너무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었다.

“당시 하던 업무를 다 접고, 피해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의 3일에서 4일 정도는 밤잠도 안자고 피해복구를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엔 힘들다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복구 작업을 하면서 저희의 노력으로

이재민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봉사자의 뿌듯함, 보람을 느끼며 이런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 공군 소위로 임관 후 7년간의 군생활을 뒤로 하고, 2009년에 전역한 그는 2011년 소방관이 되었다. 소방관이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지만,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조종사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내려놓아야 했다. 비록 공군에서 조종사가 되진 못했지만 대학에서 항공운항과를 졸업해 비행면장을 보유하고 있던 그는 전역 후 좀 더 노력하면 민간항공 조종사가 될 수도 있었다. 오랫동안 꿈꿔온 조종사의 길을 포기하고 소방관이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여전히 그의 눈빛과 어조에는 공군에 대한 추억과, 하늘을 향한 애정이 깊이 배어있었다. 그만큼 더욱 아쉬웠으리라.

“사실, 그게 정말 어려웠죠. 선택하는 것은 마음먹기만 하면 되지만, 그 선택을 실행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 2년을 더 교육을 받는다면 조종사가 될 수도 있는데, 고지가 멀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하며 많이 망설였죠. 하지만 지금은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봉사하는 느낌, 시민들과 함께하는 느낌, 일하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르면서도 같은 군인과 소방관, 국민을 지키는 작은 영웅



그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저돌적으로 나아갔지만 막상 소방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체력'이었다. 군인 역시 강한 체력이 요구되었지만, 소방관의 업무가 요구하는 체력은 그 종류가 달랐다. 나아가 일선에서 여러 가지 사고 상황을 견뎌야 하는 마음가짐 또한 큰 각오가 필요했다. 그렇게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소방관이 되었다. 그로부터 6년, 군인과 소방관으로서 비슷한 시간을 복무한 최재구 소방교에게 군인과 소방관에 대해 물었다.

“사실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군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소방관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을 합니다. 다만 약간의 다른 점이라면 소방관은 국민에 좀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군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지만, 소방에서는 정말로 밀접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진압하는 일은 기본이고, 승강기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 문이 잠겨 집안에 갇힌 아이들을 돕고, 아니면 말벌집을 제거하는 일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구 소방교는 소방관이 된 이래, 화재진압 업무를 맡아 각종 사고현장을 누볐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소방 예방과 검사지도팀에서 특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기억에 남고, 보람되었던 일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구조대에 근무하던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등산 중에 발목 골절을 당한 분을 구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이었어요. 혼자서는 너무 벅차 구조대원 네 명에서 이송해야 했어요. 그때 그 조난자 분이 많이 미안해하시고, 그 뒤에도 고맙다고 연락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네요.(웃음) 또 이곳 서초소방서 인근 지역은 고속도로를 끼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사고로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면서 이들이 내 가족, 친구, 동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또 구조된 분들이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실 때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문자 메시지, 전화 한 통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위험에 처한 이들을 안전하게 구하고, 재난 현장의 수습을 도맡아 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소방관들 역시 사고 현장



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가 어느 날 자동차 전시장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했을 때였다. 온통 연기로 자욱한 공간에서 몇 발자국 앞에 승강기 통로가 있었고 그는 하마터면 떨어져 큰 사고를 겪을 뻔했다. 또 화재 진압을 위해 쓴 방화수가 천장을 붕괴시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소방관으로서, 언제 출동하든 완벽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며, 위험요소는 무엇인지,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지 세세하게 준비해야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동료의 짐이 되겠죠”



공군 출신 소방관이 전하고 싶은 말

최재구 소방교는 의사의 진료와 정확한 약 처방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병을 이겨낼 체력과 병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이 더욱 중요한 것처럼, 적절한 예방이 일상에서 겪을 각종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도 피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방지하는 것이죠. 저희 소방 캠페인 중에서 소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소’는 소

화기를 뜻합니다. 두 번째 ‘소’는 옥내소화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심’은 심폐소생술이죠.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사용법은 사실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는 있어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평소 실습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가 일어난다면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예방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그리고 안보의 위협에서 일상의 위협에 새로이 맞서고 있는 그는, 공군에서 배운 좋은 시스템을 소방 업무에 적용하고 싶다고 전했다. 전역하고 보니 공군의 여러 시스템 중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핫라인과 중앙지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회상했다. 소방분야 또한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만큼 공군의 이러한 모습을 적용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공군인에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았다.

“저는 군대를 전역했을 때 이미 나이가 서른을 넘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이 서른, 마흔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군은 저에게 제2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기, 선배, 후배들이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F**





공군을 거쳐 간 모든 이는 우리의 ‘전우’이고 ‘친구’이다



우리 공군이 항상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려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군력을 운영하고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이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우호적인 여론 층을 확보한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필자가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 이듬해인 1976년 10월 15일에 박동선 게이트가 터져서 한미간 외교문제가 불거졌던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 일간지에 로비에 대한 칼럼이 실렸었다. 간단히 소개하면 전 세계적으로 로비를 가장 잘하는 국가가 이스라엘과 대만인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유능한 로비스트를 만들기 위해 대상 국가의 정관계 유명인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자식이 그 동네 유명인사의 자녀들과 친구가 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친구’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고, 1991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을 다니면서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국방대 안보과정은 군은 물론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중견간부들이 모여 군사전략을 비롯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받는 곳이다. 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에서 온 학생들 간 교류의 장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주는 곳이기도 하다. 졸업 후에는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좋은 국정파트너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공보과정으로 복무할 당시에 장군 진급자 교육 과정을 공군대학에서 실시하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언론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 적이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지휘관들이 한데 모여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훗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하게 업무진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이러한 관점을 조금 더 확장시켜 공군을 거쳐 간 모든 자원들과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착안된다면 공군이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응원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우리 공군은 첨단 항공기와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우수인력이 많이 들어온다. 그들이 공군에서 생활하면서 익힌 긍정적인 마음과 지식, 그리고 끈끈한 우정을 제대 후에도 이어간다면 그들과 함께 우리 공군이 더욱 선진화된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첫째, 각 비행단에서 조종사와 다른 분야 요원 간에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비행대대에서 많은 시간동안 근무하다 보니 조종 외의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마찬가지로 조종사가 아닌 일반 분야에서도 조종사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전력이 항공력인 공군을 거쳐 갔음에도 전역할 때까지 항공작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둘째, 예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홈커밍 행사는 주말, 특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매년 각 출신 단체별로 홈커밍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예비역들이 주중에 공군 부대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부대별로 순번을 정하여 주말에 홈커밍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참석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주말을 맞아 그들의 자녀들도 자연스레 함께 참석하게 되어서 일찍이 공군사랑을 심어줄 수 있으며, 대를 이어 공군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수별 모임보다는 근무 당시의 특기·병과별 모임이 더 활발한 행사로 이어질 것이다. 기수별로 모이면 기본군사훈련 받을 때를 제외하곤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짧다 보니 낯설기도 하고 같은 특기 출신끼리 모이면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더 많아질 것이다.

셋째, 대외 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위탁 교육은 대위급 이하의 초급 장교를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 대학생들과 연령대가 비슷한 초급 장교들이 위탁을 나가면 학우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때 맺은 좋은 관계가 공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귀한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초급 장교 때 위탁 교육을 갔다 온 지휘관 가운데 그 당시에 사관 동기 및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각 특기별로 초급장교 초기에 위탁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리고 일반민간 위탁 교육을 많이 내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군을 많이 이해하는 친구를 많이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 공군은 오로지 대한민국 영공을 굳건히 지켜내고자 모든 열정을 다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국민들은 현대전에서 공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공군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 확보라든가 삼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은 각론에서 이견이 많이 대두되고 공군만이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군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변하거나 지지해 줄 '친구'는 공군을 거쳐 간 모든 이들이 아닐까라고 제언하며 이 글을 마친다. **AF**





공군 IN

공군이 되는 9가지 방법

: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글

이지현(공감기자 1기)

취재지원

대위 이상우(홍보과)



저 하늘에 꿈을 펼칠 당신의 청춘을 응원하는 공감팀의 특급 지침서!

공군이 되는 9가지 방법!

- 제8화 학사사관후보생 -



#1. 들어가며

공군사관학교, 학군단, 예비장교후보생의 길을 걷기에는 시기를 지나쳐 버렸거나, 본인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군생활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하여 공군 정예 장교가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인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2.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이란?

학사사관후보생은 우리에게 학사장교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하다. 학사사관후보생이란 장교 양성 방법 중 하나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그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명칭부터 '학사'장교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꼭 4년제 대학교의 학위일 필요는

없으며, 학점은행이나 독학사, 사이버대학 등의 학위도 동시에 인정해준다. 다만 입영일까지 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나이제한은 임관일 기준 만 20~27세이며, 대한민국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만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자는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3. 지원절차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한 해에 두 차례 학사장교를 모집한다. 주로 3월과 9월 중에 접수가 진행되며, 2017년 지원 시부터 임관까지의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다.
(세부 일자 변동 가능)

2017년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일정

기수	지원서 접수	특별전형 시행	필기시험	1차 합격발표	신검/면접	2차 합격발표	입영예정	임관
139기	3월 4주 ~ 4월 1주	5월 중	4월 4주 중	6월 중	7월 중	8월 중	8월 중	9월 1주 중
140기	9월 중	10월 중	10월 중	11월 중	'18년 1월 중	'18년 2월 중	'18년 2월 중	'18년 3월 1주 중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1차 전형부터 3차 전형까지 합격을 해야 임관할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할 특별전형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심사를 거친다. 1차 전형은 일반전형으로, 필기시험이다. 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전공, 적성을 고려하여 인문계와 이공계로 나뉘어 치러진다. 시험은 지원자가 선택한 지역의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합격 결과 발표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된다. 1차 전형에서 타군 학사사관후보생 선발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어 시험이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험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영어와 한국사의 성적반영은 점수별로 정해져 있다. TOEIC 시험 같은 경우 최소 0점부터 50점까지 환산되며, 한국사는 고급 1급 50부터 중급 4급 40점까지 반영된다.(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 참조)

1차 전형 평가과목 및 내용

구분	1교시 (13:30 ~ 14:35)						2교시 (14:55 ~ 15:48)			3교시 (16:10 ~ 16:40)		총계
	인지능력평가						문제안내	상황판단 평가	직무성격 평가	영어	한국사	
	문제 안내	언어 논리	자료 해석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소계						
문항(개)	-	25	20	18	30	93	-	15	180	공인 영어 성적	25	313
소요 시간(분)	7	20	25	10	3	65	3	20	30		30	148
배점		30	30	10	10	80		20	면접 자료	50	50	200

- **영 어** : 공인영어(TOEIC/TOEFL/TEPS) 성적으로 대체(미제출시 0점 처리)

* 필기시험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으로, 검정시험기관의 정기 시험만 인정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능하며, 시험 응시는 본인이 선택하되

공인성적과 필기시험 중 유리한 점수 적용

* 필기시험일 기준 3년 이내 성적으로, 검정시험기관의 정기 시험만 인정

* 필기시험은 고등학교 학습범위 중심(근현대사 포함)으로 졸업자 수준 출제(공군핵심가치 평가 2문항 포함)

2차 전형은 신체검사와 면접이다. 2차 전형은 지역별로 정해진 날짜에 인근 공군부대에서 치러지며, 약 2주 후 결과가 발표된다. 2차 전형 평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평 가 내 용	장 소
신체검사	- 신장/체중 - 남 : 159cm 이상 204cm 미만 / BMI 17 이상 35 미만 - 여 : 155cm 이상 185cm 미만 / BMI 17 이상 35 미만 * 공군 신체검사 규정 합격등위 기준 적용 - 시력 : 교정시력 우안 0.7 이상, 좌안 0.5 이상(원손잡이는 반대) * 시력 교정수술 가능하나, 3개월 이후 입대 가능 - 색각 이상자가 아닌 자 * 5급공채자, 공인회계사, 어학우수자, 공사/항과고 교관은 색각 이상자 선발 가능 - 기타 항목은 과목별 신체등급 1~3급(과목별)인 자 * 단, 정신과는 2급 이상을 합격으로 함.	수험지구별 공군부대
면접	- 면접관 : 장교 3명 - 평가항목 : 핵심가치, 국가관, 품성 등(인터넷 공군 홈페이지 참조)	

2차 전형까지 통과하였다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1주일 간 정밀신체검사, 체력검정, 인성검사 등의 3차 전형(입영전형) 실시 후 12주 동안의 기본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4. 특별전형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에서는 일반전형 외에도 '특별전형'이 존재한다. 이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동시에 지원할 수도 있는,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특별전형은 공군에서 특별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전형이다.

특별전형은 I과 II로 나뉘는데, I은 공군사관학교, 항공과학교등학교 교관전형이나 어학우수자, 특수전공 경력자를 선발하며, II는 공군 특기 가운데 운항관제, 방공통제, 방공포병, 기상, 정보통신, 무기정비 등의 분야로 투입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이들을 선발한다. 특별전형 I 같은 경우에는 매 기수 선발하는 인원이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참고해야 한다. 특별전형 II는 분야별 관련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별전형 II에는 우선선발이라는 카드도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잘 살려서 지원하는 것도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5. 임관 후 복무

복무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다. 하지만 복무 중 본인이 희망할 시 심사를 거쳐 연장 또는 장기 복무가 가능하다. 연장복무는 임관 2~9년차에 선발하며, 장기복무는 임관 3~9년차에 선발한다.

#6. 마무리하며

필자 주변에는 학사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공군 학사장교로 복무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말하는 공군 학사장교 출신의 장점으로는 자신의 특기를 살린 군복무와 끈끈한 선후배 관계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나라 하늘을 지키기 위해 일해보고 싶다면 공군 학사장교를 강력 추천한다. **AF**





공군 IN
신고합니다!

기획
하사 김재겸(홍보과)
사진
하사 박성현
(5비 정훈공보실)



박민재(21세)

병76기

군견관리병

2016. 8. 22.

(아파트 : 임창정 - 내거지지루시랑)

군견관리병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제가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기억 때문에 개가 근처에만 있어도 무서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애견카페도 많이 가고 친구 집에도 개가 있어서 자주 놀다보니 개와 친해지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훈련병때 특기를 소개해주는 책을 보다가 군견관리병을 보고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입대 전부터 장난식이나마 군견관리병으로 가고 싶다는 이런 말을 했었는데 헌병특기를 받고 5비에 와보니 군견관리병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군견관리병으로서 업무 숙달에 힘쓰고 있을 텐데 어려움은 없는지?

군견관리병은 일단 무엇보다도 군견이랑 친해져야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군견과 군무를 나갈 때나 같이 훈련할 때마다 여러 개들과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아직 정식 군견관리병으로서 지정받은 개가 없어서 군견들이 자기의 군견관리병 말을 더 잘 듣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개를 받지 못한 마음에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개들을 골다보니 개들의 특징도 잘 알 수 있고 군견들만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 목표는?

군생활을 하면서 생각해본 게 일과시간엔 군견과 함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며, 개인 시간에는 자격증 취득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견관리병이기에 군견훈련사 자격증과 제 대학과 관련 있는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역자이기에 한마디

제가 5비 헌병대대 군견소대에 배속을 받고 적응하는 동안 많이 도와주시는 두호영 병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생활하고 운동하면서 정이 쌓였는데 전역하시니 많이 아쉽고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도 전역하기 전까지 군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로 전역하고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신.고.함니라

두호영(23세)

병750기

군견관리병

2015. 3. 23.

(이입대곡 : 박호신 - Happy together)

군견관리병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군견관리병은 평상시에는 군견의 위생, 건강관리 및 제식, 복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에는 군견을 활용한 순찰 및 신원미상자 발견 시 제압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 각종 행사 시에는 탐지견들과 함께 폭발물 탐지임무를 수행하며, 우편물을 대상으로 폭발물 탐지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역하게 되면 정은 군견과 헤어질 텐데 아쉬움은 없나요?

제가 신병 때 배속받은 군견 '고니' 라고 있습니다. 저는 개를 많이 좋아해서 고니를 많이 아꼈습니다. 고니도 그 마음을 잘 아는지 잘 따라줬으며, 함께 많은 추억이 쌓였습니다. 고니가 유능한 군견이라 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다른 관리병에게 인도되었는데 아쉽기도 했지만 잘하는 모습을 보여 대견했습니다. 전역하게 되면 군견들을 못 보게 되는데 다른 개들을 볼 때마다 고니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고니가 임무수행을 마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봅니다.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소대에서 으뜸병사로 활동했던 기간 동안 했던 부모초청행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행사 때마다 병사의 대표로서 신병 부모님들께 안내해드리다 보면 제 손을 잡으시며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병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선임병께 똑같이 부탁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후임자에게 한마디

2년 군 생활 빨리 전역하고 싶었지만, 이제 막상 전역이 다가오니 정은 이곳 떠나기가 아쉬워 지네. 민재야 군 생활 하면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힘든 일은 좋은 추억이 되는 법이니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지내길 바라. 5비 헌병대대 군견소대 파이팅! AF



공군 IN Fitness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봄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바깥 활동이 늘고 있다.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바라는 이들에게 걷기부터 마라톤, 등산까지 다양한 실외 운동을 추천한다. 하지만 추운 겨울 동안 굳어있던 몸으로 의욕이 앞서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몇 가지 수칙을 기억하자.

1.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자

모든 운동 전에는 워밍업이나 스트레칭이 기본이다. 달리기나 근력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워밍업을 하고, 무용이나 태권도는 스트레칭을 한다. 워밍업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근육 파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 무용이나 태권도처럼 유연함을 필요로 하는 종목에서는 정지동작으로 길게 몸을 늘이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 아무리 가벼운 걷기 운동이라도 간단한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풀고 움직이면, 몸이 유연해지며 운동 동작이 훨씬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가 유지된다.

2.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자

걷기 운동은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하면 뼈와 근육은 물론 몸 전체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평소 관절이 좋지 않을수록 강도가 높은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걷기 자세는 몸을 곧게 유지하고, 어깨는 약간 뒤로 젖히듯이 바로 펴고, 허리와 목도 곧게 편다. 턱을 약간 당긴 자세에서 시선은 전방 10~15m를 바라보고 걷는다. 다만 봄철에는 황사가 잦으니, 실외 운동을 계획한다면 미세먼지에 유념하여 날을 잡도록 한다.

3. 적응기를 잘 조절하여 면역력을 강화하자

운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간다. 하지만 평소 하지 않던 활동을 하면 우리 몸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든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우리 몸이 아직 운동하기에 알맞게 적응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이다. 그 기간 동안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입술에 물집이 생기거나, 아침마다 혹은 하루 종일 피곤함을 호소할 수 있다.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면 내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응 기간을 갖도록 한다.



4. 하루 10분 일광욕

일광욕으로 햇볕을 듬뿍 쬐면 의사도 약도 필요 없다는 말이 있다. 일광욕이란 일광(日光, 햇볕)을 이용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일종의 목욕요법이다. 적당한 햇빛은 피부를 단련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피부 결핵과 관절 결핵, 구루병, 만성 관절 류머티즘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 내에서 비타민D가 자체 합성된다. 비타민D는 뼈의 발육과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부족하면 골절 및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는 속담이 있는데, 사실 봄이 가을보다 일사량이 1.5배 많고 자외선지수도 높다. 과도한 일광욕은 노화의 주된 원인이고, 일광화상이나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라며, 봄볕을 오래 쬔 것 같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권한다. **AF**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군악대 병사 모집안내



연령	만 18세-28세 미만
신체	병역판정검사 3급 이상인 자(단, 정신과는 2급 이상)
학력	중학교 졸업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시험과목	전공실기 (자유곡 1곡 및 초견연주)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www.airforce.mil.kr 또는 www.mma.go.kr
문의	공군 군악대 모병담당 02-506-6935 공군 군악대 042-552-4872~3



Y-20의 설계는 특별히 눈에 띄는 무너크함은 보이지 않으며, 기존의 대형 수송기들을 통해 증명된 기술만을 적용해 만들어낸 보수적인 것이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착륙 고역 배치된 뒤, 대형의 단일 수직이동 그 꼭대기에 T자형으로 배치된 수평이동은 현대 수송기로서는 이제 진부해 보일 만큼 전통적인 것이다. Y-20은 주위에 초임계 에어포일(Super Critical Airfoil)을 채용하여 복합 재료의 사용 비율을 증가시켜 내구성과 수명을 높이는 반면 중량은 가볍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전체 공허중량을 줄여 경량화되어 상승 성능을 끌어올려 주는 한편, 양항비도 높아져 엔진의 추력과 최대 이륙 중량을 늘리지 않은 채 화물 탑재량을 키우게 되었다고 있다.

조종석에는 보잉 787같은 최신 에어라인 처럼 전면 방충창 전체를 국면 유리를 붙였고, 계기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클래스 콕핏(Class Cockpit)되어 있다. Y-20의 화물칸은 높이와 너비를 An-70 수준인 4m에 화물칸의 용적은 320m³까지 늘려 앞으로 중국 군공과 정부에서 원호로 하는 대항 화물 수송에 대응하여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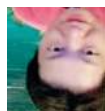
#1년 설계와 특징

2010년대에 접어들어 바로 그 규모를 키워나가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2012년 12월 25일에는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전산망(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새로 개발 중인 전략수송기의 이미지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때 Xian Y-20(西交-20/運輸-20 : 시안 이은-형제)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신형 수송기에 관한 이미지와 정보에 따르면, 형태와 크기는 무크라이나가 지금 개발 중인 터보프로펠 수송기 안토노프 An-70(Ан-70)이나 러시아의 일류신 IL-76(Ил-76)과 흡사해 보였다.

2013년 1월 26일 중국 북서부 시안의 연량 공군 기지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된 Y-20은 향후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전략 수송기로 100~300대 가량이나 대량으로 생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Y-20을 제작한 시안 항공공업 집단은 2013년 2월 3일에 Y-20의 개발을 축하하기 위한 자체 행사를 열고 예전에 JH-7과 J-15 실격기, 그리고 이번엔 Y-20 수송기 개발을 지휘한 쑤중(孫聰) 부총공정사와 탑승장을(傅曉亮:1960~) 총 설계사에게, 중국항공공업그룹 자曲江산 선진인재라는 칭호와 함께 150만 위안(2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상금을 지급했다.

중국의 차기 전략수송기

| Air-power Report |



문사진, 계운
서정숙(서울대)
다현(공정)

GLOBAL & INSIGHT
Air-power Report



시제기의 엔진은 IL-76와 솔로비예프 D-30KU(Соловьёв Д-30КУ) 터보팬 엔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포드 형식으로 4기를 매달아 장착했다. D-30KU의 추력은 23,150lbf로 엔진 4기를 합쳐 92,600lbf로 다소 추력이 부족한데, 중국은 원래 IL-76의 최신형에 탑재되는 아비아드비가텔 PS-90A-76 (Авиадвигатель ПС-90А-76 : 추력 35,300 lbf)의 조달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협의가 된다면 이 엔진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엔진 구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해도, 이미 군용 터보팬 엔진을 국산화시키는데 성공한 중국은 자국산 WS-20(추력 31,000 lbf)으로 대응하는 해결책이 있다. 물론 이 엔진은 원래 전투기용으로 개발된 탓에 그대로 쓰게 되면 연비가 낮아 개량이 필요할 것이지만,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엔진 수입에 관해 논의할 때 자국산 엔진을 비장의 협상 카드로 쓸 것이 틀림없다. 과거에 한때, 러시아 안토노프와 중국이 협동해 An-70을 제트 수송기로 개량한 버전을 공동 개발하는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주장은 Y-20의 동체 형상이 An-70을 닮은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 기체의 개발에는 90년대에 소련 붕괴 후 경제난에 빠진 러시아로부터 헐값에 구입한 IL-76도 분명히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군의 수송기 부대를 총괄하는 공중기동비행단 사령부인 공운사(空運師)는 IL-76을 20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풍부한 운용 경험을 쌓았고, 항공 업계는 자국 기술진의 힘만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조기경보기 버전인 KJ-2000으로 개조하여 독자적인 파생형을 만들어낼 정도로 대형기에 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관련 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경험과 기술을 집대성한 차세대 전략 수송기가 바로 Y-20인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Y-20의 개발 책임자인 탕창훙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항공 산업이 실현하는 것은 한 시대의 기술이고, 당대의 기술을 모두 항공 기술에 융합하는 것이다. 항공기 제작이 나타내는 것은 한 국가의 산업 능력이고 컴퓨터, 소재 등 기타 산업에 모두 강력한 대동 작용을 하므로, 항공기 제작 능력이 곧 그 국가의 종합적 국력을 구현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공군은 Y-20 시제기의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이 기체에 ‘쿤펑(鯤鵬)’이라는 제식 명칭을 붙여주었다. 중국의 고전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에서 등장하는 이 상상 속의 동물은 북극 바다에 사는 물고기 곤(鯢)이 거대한 새로 변하여 봉(鳳)이 되는데, 그 크기는 몇 천 리 인지 알 수 없고 날갯짓 한 번에 태풍이 불고 한 번 날아오르면 단숨에 9만 리를 날아 6개월 만에 남극 바다로 간다고 한다. 허장성세가 강한 중국인이 붙여준 이름이지만, 한편으로는 Y-20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 나오는 작명이 아닐까? **AF**



공군 재무관리본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우리가 대비할 것들!

INSURANCE POLICY



2017년 1월 23일, 정부는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호를 준비하는 지금 기준으로는 아직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확정되겠지만,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재산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던 부분을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인, 공무원 등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개편안을 기준으로 공군가족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셔야 할 것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I.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주요내용

이번 개편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소득의 범위입니다. 개편안 이전에는 피부양자(부모기준)의 소득요건(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일 경우)과 재산요건(재산이 9억원 이하일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였으나, 개편 이후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소득과 재산을 많이 보유한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소득요건(종합과세소득 합산기준)		재 산 요 건	
1단계 (2018~2020년)	3,400만원 이하	1단계 (2018~2020년)	9억 이하 또는 5.4억 이하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하
2단계(2021~2024년)	2,700만원 이하	2단계(2021~2024년)	9억 이하 또는 3.6억 이하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하
3단계(2024년 이후)	2,000만원 이하	3단계(2024년 이후)	

1단계기준(2018~2020년)으로 각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약 월 9~66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구분	소득 (연금소득포함)	재산	건강보험료
A씨	연 3,410만원		약 월 9만원 대
B씨	연 1,010만원	약 11억원	약 월 18만원 대
C씨(직장인자녀1명)	연 3,420만원	약 8억원	약 월 20만원 대

C씨의 경우 그동안은 금융소득(이자·배당수익과, 연금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연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재산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월 20만원 대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바뀝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1단계 개편부터는 모든 소득을 더한 종합과세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연금소득은 20%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3단계부터는 연금소득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노후대비 연금준비 방법에도 변화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II. 노후 연금액은 늘리고, 건강보험료는 줄이기 위한 꿀팁

국가는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의 소득 확인을 매년 소득신고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초과되는 세금의 환급을 해주기도 하고, 소득대비 세금 납부가 적을 경우 추가 징수를 하기도 하죠. 은퇴 이후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통한 세금을 통해 재산확인이 가능하지만, 노후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은 국민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2002년부터 납입한 국민연금부터는 연금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에 소득증빙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신에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공적연금은 분리과세에서 제외되어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 1,2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연금소득 수령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군인, 공무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은퇴 후 연금자산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의 경우,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공적연금을 제외한 부동산이나 임대소득, 세제적격 금융소득 등의 비중을 비과세 자산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판매 중인 10년 비과세 해외주식펀드계좌(연말까지 가입가능)나 보험사의 비과세 저축보험, 비과세 연금보험과 같은 금융상품들이 존재할 때 준비를 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각종 개인연금들의 가입추세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바뀌는 것은 결국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앞으로 받게 될 나의 예상연금수령액을 확인하고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소득공제형 연금과 10년 비과세 연금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노후대비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으로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길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 빠듯하게 생활하며 모아온 연금수급생활자 분들에게 또 하나의 고정지출비용이 커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았던 선배들의 케이스를 따라 준비하게 된다면 더 적은 연금액과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년보다 늦은 추위 때문에 겨울이 더 추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드디어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들을 한 번씩 확인해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군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AF**





Hollywood English

설리 : 허드슨강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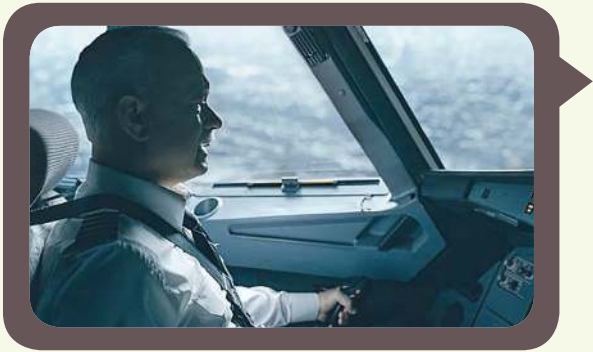
2009년 1월 15일, 'US항공 1549기'가 water landing, 즉 비상착수(非常着水)했습니다. 조종사는 여객기가 내릴 곳으로 공항 대신 허드슨 강을 택했던 것입니다. 탑승자 155명은 전부 극적으로 생명을 구합니다.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의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영화의 핵심 정보를 도입부에서 미리 공개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미리 소개합니다.

① 캐릭터-설리(툼 행크스)는 주인공 조종사의 애칭입니다. 본명은 체슬리 버넷 설렌버거(Chesley Burnett Sullenberger)입니다. 미국 공군사관 학교에 들어가 F-4 팬텀기 조종사로 복무했고 대위로 전역한 후엔 40년 넘게 여객기 조종사로 일했습니다. 여객기 비행경력 2만 시간에 달하며, 그가 태운 승객은 총 100만 명 이상입니다. 현재 그는 항공안전 분야 컨설팅 사업을 경영합니다.

② 사건-생일을 일주일 앞둔 날 설리가 조종하는 'US항공 1549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륙 3분 후 850m 상공에서 새떼와 부딪힙니다. '두 엔진을 다 잃었다'며 조종사가 다급하게 알리는 육성을 들어봅시다. "Mayday, Mayday! We've lost both engines" 설리는 허드슨 강에 비상착수를 시도합니다. 결과는 기적적 성공입니다. 새떼와 부딪힌 후 착수까지 208초 사이에 벌어진 창의적 사투의 결과입니다.

③ 쟁점-설리는 왜 공항 관제사가 라과디아 공항이나 테터보로 공항에 착륙하라고 유도했느냐 따르지 않았을까요?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그에게 묻습니다. "왼쪽 엔진의 추진력이 살아있었는데 왜 관제사의 지시를 안 따랐습니까?"

영화는 이들 세 관전 포인트를 '기승전(起承轉)'에 깔고 공청회에서 벌어지는 공방전인 '결(結)', 즉 '핵심 쟁점'에 대한 쌍방의 주장을 통해 관객을 극대치로 흡인합니다. 특히, 설리의 비상착수는 항공사와 보험사 입장에서선 잘 된 결과가 아니어서 그들 입장을 의식한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반박합니다. “새떼와 부딪혀 양 날개를 잃어버린 사례는 선례가 없습니다” 설리가 받아치겠죠?

“처음 일어나기 전까진 다 선례가 없죠(Everything is unprecedented until it happens for the first time)”

비행하기 전 날 여덟 시간 숙면했고, 술은 9일 째 안 마셨고, 복용한 약도 없고, 집안일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건만 계속 취조하듯이 묻습니다. 한편, 언론은 그에게 전폭적으로 호의적입니다. “시민들이 당신을 영웅이라 부르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How do you feel when people call you a hero?)” 한 매체가 묻자 설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웅이라 느끼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일 뿐입니다 (I’m just a man who was doing his job)”

‘꼭 필요한 때에 꼭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의 발언은,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소임을 다했다’는 뜻이지요. 미국연방항공안전위원회는 왼쪽 엔진 추진력이 살아있음에도 설리가 활주로 착륙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따집니다. 설리는 경험과 의지로 허드슨 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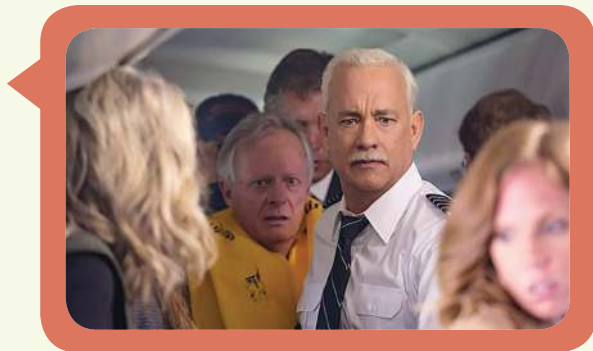


선택했다고 답합니다. 미국연방항공안전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양쪽 엔진이 다 망가진 걸 직감한 설리는 찰나의 순간에도 항공기 고도 및 속도를 계산해가면서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해 활주로는 ‘더’ 위험하고 허드슨 강은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영화는 설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단원에 배치한 공청회로 넘어가기 전 비상착수 과정을 생중계하듯 상세히 보여

줍니다. 설리는 못 빠져나간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후까지 기내에 남습니다. 거물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만나고 싶다고 해도 그는 수색에만 집중합니다. 탑승자 155명 전원 무사하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현장을 떠납니다. 1,200여 명의 구조대원을 포함, 모두가 합심해 기적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시간은 24분입니다.

이제 공청회를 들어다봅시다.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조종사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여객기가 인근 공항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설리가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인적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어요(You have not taken into account the human factor)” 자기에게서 ‘인적 오류’를 찾고 싶으면 ‘인적 요소’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하라는 주장이지요. 그 ‘인적 요소’는 스포일러여서 가려둡니다. 유실된 왼쪽 엔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발견 됩니다. 208초 동안의 조종실 음성기록도 공개되고, ‘인적 요소’를 반영한 시뮬레이션도 실행됩니다. 비상착수 결정이 옳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가 밝혀집니다.



이런 명구가 있지요. ‘The best ship is leadership(가장 훌륭한 ship은 리더십이다)’ 무엇을 은유하는 걸까요.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을 떠올려 봅시다. ‘the best ship’이 가리키는 건 이순신이 탔던 지휘선이 아닙니다. ‘이순신 = 리더십이 뛰어난 지도자’를 은유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설리는 ‘the best ship’입니다. **AF**



TREND's GOOD

트렌드가 보인다



남성들의 '멋'을 위한 패션제안

드라마 <도깨비>를 보셨나요? 공유의 일품 연기도 화제지만,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연일 오르내리는 건 바로 '공유 패션'. <푸른 바다의 전설> 속 이민호의 패션도 '국민 남친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마음만 뺏은 게 아닙니다. 이 배우들이 입고 나온 옷마다 전국 매장에서 연일 '품절' 행진을 기록하며 남자들의 옷장을 점령 중.

지금 당장 눈 여겨 봐야 할 남자 배우들의 선호 아이템을 알아볼까요? 초겨울부터 올 봄까지 유효한 4가지 기본 아이템을 골랐습니다.

블랙 롱 코트

평소 즐겨 입는 코트보다 두 배쯤 긴 길이의 롱 코트

드라마 <도깨비> 마지막 회에서 도깨비 신부를 보낼 때 공유가 입은 검정색 코트를 기억하시나요? 알파카 소재가 유난히 반짝이던 바로 그 옷! 보통 코트보다 두 배 정도 긴 무릎 길이로 단추를 잠그지 않으면 걸어갈 때 화려한 실루엣이 연출됩니다.

앞 판에 두 줄의 단추가 달린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로 모두 잠그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알파카 더블 브레스티드 롱 코트, 제이백쿠튀르





트렌치 코트

정장 차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우터!

영화 <더 킹> 속 조인성과 정우성처럼 정장을 차려 입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아우터가 바로 트렌치 코트!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속 이민호와 영화 <순정> 시사회에 등장한 박보검은 모두 코듀로이(일명 골덴) 소재의 트렌치 코트를 골라 입었더군요. 도톰한 소재는 꽃샘추위가 한창일 때도 가벼운 코트대용으로 입기에 좋습니다.

코듀로이 트렌치 코트, (좌)제이백쿠티르, (우)버버리

재킷형 카디건

가벼운 재킷처럼 입을 수 있는 디자인

잘 고른 카디건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두툼한 카디건 대신 얇은 소재의 재킷형 카디건을 골라보세요. 정장 차림엔 셔츠 위에 겹쳐 입기 좋고, 따뜻한 계절엔 아우터로 걸쳐 입을 수 있죠!

재킷형 버튼 카디건, (좌)마시모 두피, (우)망고



볼링 셔츠

평범한 셔츠보다 멋스러운 칼라 셔츠



재킷형 볼링 셔츠(왼쪽부터)
제이백쿠티르, 자라, 팀 코펜스

드라마 속에서 공유뿐만 아니라 평소 배우 신하균과 비, 아이돌 그룹 엑소 백현과 수호도 즐겨 입는 스타일.

마치 재킷을 입은 것처럼 칼라가 넓적한 셔츠를 '볼링 셔츠' 혹은 '칼라 셔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는 셔츠보다 멋스러운 분위기가 매력이죠! 안에 티셔츠를 입고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 재킷처럼 걸쳐서 연출할 수 있습니다. **AF**



생각하는 그림

올림픽 3연패보다 빛난 그의 질주

#1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은 에티오피아 출신의 비킬라 아베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당시 마의 벽이라 여겨졌던 2시간 20분대의 기록을 깨뜨리고, 1964년 동경 올림픽에서도 자신의 세계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입니다.



#2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비킬라 아베베는 레이스 초반부터 선두로 달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아베베를 세계 각국에서 온 마라토너들도 의식하며 그와 함께 선두그룹을 형성했습니다.

#3 그런데 17km 지점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지쳐서 조금씩 뒤로 처지고 에티오피아의 팀 동료인 마모 월데가 선두로 나서는 순간 아베베가 경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우승은 마모 월데에게 돌아갔고, 경기 직후 마모 월데는 우승의 영광을 아베베에게 돌렸습니다.



#4 경기가 끝나고 에티오피아 팀의 네구세 로바 코치는 기자회견장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아베베는 경기 전부터 왼쪽 다리 골절상을 앓고 있었으나 동료선수 마모 월데를 위하여 일부러 초반부터 무리하게 오버페이스를 하며 경쟁자들에게 교란을 주려고 경기에 출전했던 것입니다.

#5 에티오피아 팀의 마모 월데는 아베베의 도움으로 금메달을 거머쥔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통해 충분한 부와 명성을 누리고 있음에도 동료들을 위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아베베, 비록 3연패의 위업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주연보다 빛나는 그의 조연은 세계 스포츠 사에 길이 빛날 미담으로 남았습니다.



#6 우리는 살면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 코스를 달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때론 '빛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아베베처럼 빛나는 조연의 역할로 기여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치 있고 보람찬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F**

담벼락

그 순간 번째 이야기 「시작」



제16전투비행단
보급대대
일병 강민구

잔혹하고 찬란한 新 시작

“시작이 반이다.” 우리 인생에서 시작이란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속담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시작이란 단어는 어느 순간에는 나의 인생에서 잔혹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찬란했다. 때는 바야흐로 중3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에게 고등학교 입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치열한 일이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흔히 말하는 ‘뺑뺑이’로 보통 고등학교에 진학하겠지만 운동하는 선수에게 고등학교 입시는 그 어떤 때보다 치열했다. 운동선수에게 대학을 간다는 것은 그리 자랑할 일이 아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잘하면 바로 발탁되어 태릉에 입성하기 때문에 대학입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운동선수에게는 대학입시보다 고등학교 입시가 더 중요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고등학교 입시를 기다리는 한 선수였다. 어릴 때부터 해 온 수영이란 취미는 시간이 지나며 운동이 되었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에 매달리는 생업이 되었다. 하지만 즐거웠다. 아무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물속이 아름다웠고 그 안에서 수영하는 나는 무중력을 체험하는 느낌이었다. 오죽했으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냐는 말에 다른 친구들이 염력이요, 투명인간이요라고 말할 때 혼자 물에서 숨 쉬는 능력이요라고 말할 정도로 물을 좋아했었다. 이렇게 물과의 ‘뽐’을 계속해서 타가던 중 어느 젊은 의사의 오진이 물과의 영원한 작별을 만들었다. 그 날도 어느 날과 똑같았다. 열심히 물을 가르며 연습을 하고 있었다. 연습이 끝나고 물 밖으로 나와서 발을 땅에 디디는 순간 뭔가 모를 이질감이 느껴져 넘어졌다. 발가락이 모든 게 평범한 날과는 맞지 않게 평소보다 2배로 불어있었다. 사람의 몸도 스펀지처럼 물을 오랜시간 머금으면 부풀어 오르는 건가하면서도 웬지 모를 두려움이 느껴졌다. 이내 바뀌어 바로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가 내린 진료는 티눈이며 일시적이라는 것이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의 진료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희망이었고 믿음이었다. 그렇게 그날의 이질감은 일단락되었다. 얼마 뒤 고등학교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전국 청소년 수영 대회가 개최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태환 선수처럼 멋진 수영 선수를 꿈꾸며 대회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그 날도 어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이질감이 다시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그 이질감은 전과는 달랐다. 뭔가 좀더 강했고 아팠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던 한 몸은 그대로 물살을 가르지 못하고 수영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면서 본 수영장 바닥은 평소에 보던 파란 바닥이 아닌 검은색이었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수영장 바닥이었다.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내가 본 것과 대조되는 흰 천장이었다. 또한, 전에 느끼던 발에서의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관촬아졌겠지 하는 기대감에 들뜬 채 시선을 흰 천장에서 발로 옮겼다. 하지만 발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고 결국 나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후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했으며 부상으로 수영을 그만 두게 되었다. 그렇게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땀 흘리며 노력했던 것들이 허망하게 끝이 났다. 몇 달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살다가 평범한 고등학교에 입학할 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학생의 삶은 잔혹했다. 수업은 따라가기 힘들었고, 처음 듣는 공식들은 머리를 어지럽게 했으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스트레스만 불러일으켰다. 잔혹한 학생으로서의 삶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이 잔혹함은 찬란함으로 바뀌었다. 공부를 하면서 연기라는 취미를 찾았고, 서로 경쟁하는 선수 친구가 아닌 함께 힘을 맞추는 친구가 생겼다. 수영을 하며 흘렸던 땀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연기를 하며 흘린 땀으로 바뀌어 마침내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 행복하고 빛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지금도 그 두 번째 시작을 감사하며 보람 있는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제34방공관제전대

지휘통제실

중사 강민찬

그 때 그 곳, 지금 여기

요란하게 들썩대던 맥박 소리, 열은 행복감이 묻어있는 결의에 찬 표정들, 시원한 바람 냄새, 하늘, 지평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딱 그 정도의 긴장과 뿌듯함이었다. 교관의 마지막 말, 너희는 충분히 멋있고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지금 당장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곱씹게 되는 아득한 말이었다. 제40기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및 임관식 현수막 밑에서 양 옆으로 이어져 손을 흔들며 환호하던 많은 사람들, 이날 이 시간을 위해 피땀 흘려가며 나와와 싸움에서 질 때가 더 많았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감탄이 절로 나오게 맞춰진 간격과 열을 유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행사장 앞으로 걸어가고 있던 138명의 동기들은 각자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힘찬 발걸음을 사이로 먼발치에 있던 사람들 중 내 가족은 어디 있는지 알든 찾지 못해 조급한 눈동자 소리가 부푼 가슴을 더 격하게 만들고 있었다. 계급장을 어깨에 달아주러 오던 가족을 보자마자 일말의 준비운동도 없이 외락 눈물을 쏟아내던 그 때의 나, 그리고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40기 동기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특히 이맘때쯤이면 6년 전 임관식이 열렸던 그 날의 표정들과 소리, 냄새, 촉각들이 생생하게 나의 오감을 자극해 마치 행사장에 서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가끔씩 힘들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견딜 수 없을 때면 교육사 대연병장을 찾아가곤 한다. 그곳, 그 자리에 가만히 눈을 감고 서있어 보면 “너희는 충분히 멋있고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야”라는 말이 들려와 오물오물, 천천히 되뇌게 된다. 그리고는 언제나 다시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항상 20살의 나 자신이 지금의 나를 따라다니며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 때론 길을 잃어버려 허망하게 서있기도, 넘어지기도 했다. 6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당시 첫걸음을 내딛을 때의 긴장과 뿌듯함이 내 일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에 그저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시작을 한다는 것이 뭐 별거 있겠는가. 매일 매순간이 시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인데.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그저 나 자신이 입고 있는 전투복 뒤로 따라오는 책임감과 성취감들, 가끔씩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나를 바라봐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들을 윤택하게 쓰는 게 도리이자 의무가 아닐까 싶다.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다면 그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 아직 무엇인가에 첫걸음조차도 내딛지 못했다면 당연하게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우리 자신에게 생생한 떨림과 긴장을 선물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마 그건 평생 동안 지워지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259전술공수지원대대

중위 윤성현

시작: 살과의 전쟁

“성현아, 살 좀 빼”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께 들었던 이 말은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를 맴돌고 있다. 그 때까지 90kg에 육박하던 몸무게의 소유자였던 나는 단 한순간도 살을 빼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살은 언제나 빠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동시에 내 입에는 무언가가 항상 들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지만 입안의 달콤함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했던 내게 “성현아, 살 좀 빼”라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 말을 한 선생님이 무척이나 똥똥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었다. ‘지금 누가 누구보고 살을 빼라는 거지? 학생에게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쳐오면서 굉장한 화가 났다. 그와 동시에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말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게 나와 살이 19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싸우게 된 시작이었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라면 네 개에 밥도 말아먹을 정도로 왕성한 식욕을 가졌던 나에게 밥을 줄이는 건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이제 싸움은 시작된 걸. 결국 과감히 밥을 줄였다. 학교 급식에 나오는 밥을 반으로 줄이고 2주를 살아봤는데 4kg나 빠졌다. 그렇게 밥을 줄이면서 80kg에 도달할 정도로 살을 뺐다. 밥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몸무게 감량에 무리가 있었다. 어느 정도 정체기에 들어서자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하다못해 뭐라도 입에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을 빼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행복하게 입안의 달콤함만 느끼면 되지 않나 생각하며 나 자신에 최면을 걸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성현아, 살 좀 빼”라는 그 선생님의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파다. 그렇게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운동을 시작했다. 첫날은 3km를 뛰었다. 그리 힘든 거리는 아니지만 온몸이 바깥해 헬스장에 나가기 싫었다. 그래도 죽어도 헬스장에서 죽어보자며 꾸준히 나갔다. 차츰차츰 거리를 늘려 어느 날은 10km 달리기에 성공했다. 그 다음부터 한 달 반을 10km씩 뛰었다. 시작은 분명 3km였는데 다이어트를 종료하는 날엔 12km로 마무리했다. 어느덧 내 몸무게는 61kg로 줄어있었다. 고통스러운 3개월의 시간을 버티게 해 준 것은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살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맛있는 음식을 한 번이라도 더 참았으며, 10m라도 더 뛰었다.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과연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을지 궁금하다. 그래서 아직도 선생님의 그 말은 내 귓가에 맴도나보다. 살이 찌려고 할 때면, 무심결에 살을 빼리던 그 선생님의 말투와 그 말을 들던 장소를 떠올리곤 한다. 앞으로 치킨이나 피자의 유혹이 나를 찾아올 때면 항상 그때 그 말을 떠올리며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성현아, 살 좀 빼” **AF**



책 읽는 공군



프레임

-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

최인철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절반 차 있습니다. 물은 '반밖에' 남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반이나' 남은 걸까요?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이 물음은, 너무나도 솔하게 인용된 탓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어구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 묻겠습니다. 같은 물컵을 보고도 다른 대답을 내놓은 것이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면, 그 관점의 차이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격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해도 될까요?" 또, 이런 질문은요?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두 질문에서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맥락만 다른 똑같은 질문을 마주하고도 다른 감상을 내놓는 존재입니다. 이를 성격이라는 애매한 단어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지요. [프레임]은, 세상을 둘러싼 수많은 맥락이 어떻게 사람의 정신 활동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책임

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변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프레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맥락과 관점, 가정을 통칭합니다. 마음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은, 우리의 모든 정신 과정을 '선택적'으로 제약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대상과 고려조차 못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사유지였던 '생각'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생겨난 프레임이 만들어 낸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허점들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마음의 창에 의해서 생겨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레임의 존재를 인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임으로 인한 마음의 한계를 직면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절대 겸손, 이 겸손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의 창을 점검하고 새로운 창을 갖추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축복이자 의무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이 공군지 독자분들의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국의 극작가 톰 스토포드(Tom Stoppard)의 말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다" **AF**

글
병장 유승현
제91항공시설전대 운영과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도로명주소: _____

□□□□□□

공군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을 응모해 주세요.

2017

March
Vol.465

백일장 신두 번째 주제

봄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 lsw1004ok@af.mil

인 터 넷(E-mail) : afcmct@korea.kr

전화번호 : 042-552-6943

POSTCARD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_____
- 월간 <공군> 3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_____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_____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_____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3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월간 「공군」 3월호

Quiz

잘 읽고 정답은
상단 엽서에 적어주세요~

마감일 : 3월 31일까지

1. 전군 유일의 기상전문부대로 군사작전에 특화된 기상예보를 생산하는 부대는?
① 공군기상단 ② 공군예보단 ③ 국방기상단
2.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구성된 공군 특수비행팀의 이름은?
① 블루이글스 ② 블랙이글스 ③ 블루에어포스

1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③ 케이볼카 2. ②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당첨자 경남 김해시 김현영 / 서울 서대문구 최정욱 / 부산 서구 전원단
경기 시흥시 김경환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사이버테러·군사보안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변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c.mil.kr)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 (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트라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2017

March
Vol.465



보내주신 독자엽서 중
매월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분께
‘에코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